

에너지경제연구원 향후 30년의 과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박 주 현



우리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가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 수립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6년에 설립되어 금년에 개원 30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에너지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안정적 에너지수급 확보, 에너지산업 구조 선진화, 고유가 위기 대응, 국가 에너지계획 수립,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대응” 등 에너지부문의 중요한 국가 아젠다 현안마다 정부 정책의 수립지원을 위한 에너지 씽크탱크로서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파리협정’으로 대표되는 신기후체제의 등장에 대응하여,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국가적 도전과제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에너지시장은 탄소시대의 ‘존속’과 ‘종말’을 상징하는 두 가지 패러다임, 즉, ‘세일혁명’과 ‘신기후체제 출범’이라는 서로 상반된 힘에 의하여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사이에서 성공적인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 하에서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에너지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세일혁명’에서 촉발된 저유가로 대표되는 현재의 안정적 시장상황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탄소경제에 걸맞는 시장과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저탄소경제의 에너지시스템 모습은 현재의 에너지소비 · 공급의 형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의 개원 30주년 기념 특집호로 발간되는 이번 에너지 포커스 겨울호에서는 “신기후체제 대응 미래 에너지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하여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글로벌 재생에너지 보급 동향, 사물인터넷을 통한 미래 에너지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특집 논단을 구성함으로써,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정책 및 시장환경 변화 속에서 저탄소경제 구현을 위한 미래의 국가 에너지시스템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과제는 우리가 반드시 직면하게 될 결코 미룰 수 없는 중장기적 과제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원의 역할은 바로 이런 연구영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안 해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정부를 도와 중장기적 과제를 개발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저탄소경제 연구를 향후 30년 과제로 삼아 매진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한 세대 동안 쌓아온 성과는 우리 연구원 구성원 모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저희가 걸어온 길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연구기반 확충과 정책선도기능 강화, 창조적 연구성과 창출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정책 연구기관으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